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0호 [루게 제25008호] 주제104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  
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최룡해동지, 오수  
용동지, 조용원동  
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보안부장 최부  
일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농장  
의 일꾼들이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인 농  
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  
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  
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의 일꾼  
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

게 벌림으로써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레년에 없는 풍요  
한 과일작황을 마련하였으며 조국해  
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끌라 수도시민  
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고 너  
무 기뻐 찾아왔다 하시면서 과일항  
기가 차넘치는 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수  
밭에 들어서시어 그루당 사과알수

와 한알당 무게도 알아보시면서 땅  
이 꺼지게 정말 많이 달렸다고, 멋  
있다고, 요란하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흘리  
신 인민사랑의 고귀한 땀방울이 그  
대로 열매가 되어 조국해방 70돐  
과 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울  
해에 과일대풍이 들었다고 하시면

서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던 수령님들께

가지마다 주렁진 과일들을 보여드  
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먹음  
직스러운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  
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나라  
가 흥할 징조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  
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

든 과수농장들에서  
해마다 과일대풍을  
마련하는것은 과수  
부문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옹호고수하고  
수령님들의 권위를  
보위하기 위한 대단  
히 중요한 사업이  
라고 강조하시였다.

나라의 과일생산  
을 비약적으로 늘  
이기 위해서는 과  
수농장들에서 정보  
당 50t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목  
표를 내걸고 정보  
당수확고를 결정적  
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려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과일생산량은 과수의 과학화, 집  
약화수준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것만큼 과수부문에  
서는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수에서도 기본은 종자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  
량품종의 과일묘목생산을 정상화하  
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 서 계 속

과수농장들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특성이 서로 다른것만큼 해당농장들에서는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과일나무배치를 정확히 할뿐아니라 시기별, 공정별에 따르는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일생산을 늘이자면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하고 하시면서 과수농장들에서는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수부문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과일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운반수단과 용기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과학기술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수업의 세계적인 발전동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전국의 과수농장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과일대풍을 안아왔다고, 당창건 70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수에서도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농장을 세계গুল이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한몸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우리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 삼가 올림합니다

삼천리 온 강토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민족재생의 은인,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사후추지는 그리움에 대하처럼 흐르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속에서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여 민족의 절절한 통일열원을 다시금 확인하고 새로운 결의에 찬탄된 해외동포대표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떠나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통일의 전천적국면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선대수령들에 대한 고결한 도덕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넋을 이 땅에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기저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순리를 향해 노력하여 온 해외동포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정마당에서 거세차게 타번지는 거리의 절절한 통일열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김정은원수님의 기저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순리를 향해 노력하여 온 해외동포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런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어머니조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님, 장관님들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련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기어이 간직하고, 통일대업을 위한 맹수로 발들어오시고 해외동포조직들을 주체의 애국으로 든든히 꾸리며 어머니 내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 참다운 애국동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국력이 약한 탓에 바다 건너 섬오랑캐에게 나라를 통째로 강탈당하고 망국노의 뼈저린 실움속에 피눈물 뿌리며 살길 찾아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어둠의 하늘 밑에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은 제국주의와의 총포성검은 첨예한 대결에서 편전패승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력사의 만년사편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발돋움하여 룡룡서 내딛는 전변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만고불멸의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세례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신다고 온 세상에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육성선언을 들을 때까지도 저희들은 우리 조국이 이렇듯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지적들을 이룩해나갔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만남을 헤치며 싸워나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 70년전 조국해방에 차근차근 조국해방의 검과 깃발이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환호성되어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백두산에 나뭇길 민족의 통일기를 기어이 제후도 한나산에 휘날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기어이 조국통일대축전으로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어 암흑에 짓눌렸던 이 나라에 해방의 서광을 안아오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비로소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 사회주의강국으로 지구촌에 우뚝 그 장한 모습을 빛내일수 있게 되었으며 바람세찬 지역 땅에서 갖은 민족적차별과 멸시속에 살아간 우리 해외동포들도 몇몇한 조선사람으로 가슴고루 삼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하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선포되었으며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저높이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펼쳐질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시킬 절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도를 제시하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바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우리 조국의 모습은 지금 해마다 날마다 시간이 다 변되고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조선속도, 평양속도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찬란한 미래이며 7천만겨레의 가장 절절한 소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의 기쁨이 분별의 아픔으로 바뀌어졌을 때 민족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생애의 전기간 조국통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으며 우리 겨레에게 불멸의 충서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안겨 주시어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참으로 침략자의 발밑에 짓밟혀 울민의 봉진화 마냥 눈물겨운 망국노의 신세를 한탄하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안이일으켜 백승을 펼치는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게 해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연불멸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후손대대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이역에 사는 우리들을 귀중한 한시술이라고 하시며 결어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천어어비의 다심한 심정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불러주시고 행사기간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온갖 육친의 정을 다 배풀어주시었습니다.

바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우리 조국의 모습은 지금 해마다 날마다 시간이 다 변되고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조선속도, 평양속도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습니다.

영인트루 북극명령 헬기투입대원들의 양양한 미애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끊임없는 강발발을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무디 전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래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래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베

는민주청년동맹 위원장인 하싼 제이도우 니단장이 1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순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를 선군결정에 즈음하여 이란 하디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지문헌들을 모시었다.

주제사상언론부에서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의 요지를 펴트키에신론 《싸바르》2일 부가 게재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사지문헌을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순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의 전문을 로씨야신문 《평소블스카야 브라우다 울라지보스트로크》4일부가 게재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쟁로병들은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이》의 전문을 브라질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지문헌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브르빌

### 가봉 공화국 대통령 알리 봉고 옹딤 바각 하

나는 가봉인민의 민족적명절인 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가봉 공화국 대통령 알리 봉고 옹딤 바각 하

나는 인도의 민족적명절인 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8월 17일 평양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각 하

나는 인도네시아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공통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각 하

나는 인도네시아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공통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8월 17일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 외국인 사들에게 수여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연대행사에 참가한 친선 및 연대성단계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판계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은 우리 인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우리 나라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해외친선조직들의 령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센터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트판계연단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능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5년 동아시아

구맹명 여자동아시아정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정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정취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자축구선수

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그이께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백두산공격전법으로 싸워이던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의 날을 지키고 선군정신을 일흔 불에 드리는 자량한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

##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따르끼스탄공산당, 도이힐란트판계연단과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센터위원회 산하 이라크부조 책임 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범화세력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승승장구하여 왔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의 땅을 쓰고 남조선에 강간한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의 땅을 쓰고 남조선에 강간한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동지의 위업, 김정은동지의 위업은 훌륭히 계승완성되고있으며 조선의 최후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동지의 위업, 김정은동지의 위업은 훌륭히 계승완성되고있으며 조선의 최후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김일성동지의 위업, 김정은동지의 위업은 훌륭히 계승완성되고있으며 조선의 최후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

##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6호농장 참관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건설의 데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수령의 유희관찰정, 당정책위령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서 김정은동지를 비롯하여 군대의 책임인 군들과 성, 중앙기관, 행정인군들, 농업부문 일군, 연구사들이 17일 당의 종자혁명방진관찰에서 커다란

성파를 이룩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6호농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표시비에 풍타말들을 진행하였다. 농장건설을 직접 밟아보고 나아가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농장에 포다시 모시고 커다란 민족을 드문 드문 날의 영광과 기쁨에 넘쳐있는 이국 일 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혁명사적교양 실, 《애국포》포전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여기에는 홍선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세계인민들과의 연

회 위원장 부 부원 홍, 조선평화통일 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 위원장 피터 우즈, 파키스탄조선친선 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지메드 안 샤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연대성위원회 부위원장 드르마 비나스에게 친선 메달이 수여되었다.



# 10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미 래 과 학 자 거 리 건 설 장 에 서

## 진격로를 열어놓은 빨찌산식공격정신

우리 당이 쉼 없이 쉼 없는 혁명의 위대한 설계를 눈앞에 현실로 꽃피워가는 총진군에 앞장서는 언제나 영웅적군인건설자들이 있었다.

그들속에는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장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뚝뚝 내달리는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장병들의 미려한 모습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뚫고 바닷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명령을 받치는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에서**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부대장병들은 아름다운 매일에 가서 몇몇이 추억할 값높은 위훈을 창조하며 건설장으로 남는 30층살림집공조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었다.

남다른 긍지를 안겨주는 이 성과가 이룩된 후 부대장병들은 변이든 기적창조로 공사의 나날을 수놓아가고있다.

이들은 살림집시공조공사

를 단 60일만에 계속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짧은 기간에 건물을 올리고 있는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능공모력과 미장작업에 필요한 바늘과 발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피끓는 심장마대에 완공의 날을 안고 사는 이들앞에 어떤 불가능이 없었다.

빨찌산식공격정신으로 승리의 물결을 열어제끼자, 불같은 총정의 나날은 이렇게 또다시 이어졌다. 온 부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기계식발판이 배수식이나 제작되고 눈부리도록 한 건물의 모든 층층에 측이 설치되었다.

최단기간에 수만㎡에 달하는 건물미장공사를 이룩하기 위한 돌격로는 이렇게 열렸다.

부대장병들이 심장으로 지퍼올린 혁신의 불길속에 분초를 다지며 기록된 미장실적은 살림집공조우에 남게 되었다.

시공명량대 공사량을 따져볼 때 내외부미장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능공모력과 미장작업에 필요한 바늘과 발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피끓는 심장마대에 완공의 날을 안고 사는 이들앞에 어떤 불가능이 없었다.

빨찌산식공격정신으로 승리의 물결을 열어제끼자, 불같은 총정의 나날은 이렇게 또다시 이어졌다. 온 부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기계식발판이 배수식이나 제작되고 눈부리도록 한 건물의 모든 층층에 측이 설치되었다.

최단기간에 수만㎡에 달하는 건물미장공사를 이룩하기 위한 돌격로는 이렇게 열렸다.

부대장병들이 심장으로 지퍼올린 혁신의 불길속에 분초를 다지며 기록된 미장실적은 살림집공조우에 남게 되었다.

공사이후 20여일만에 총미장량의 45%를 초과, 이들의 위훈은 결코 벽제미장공사에만 새겨지지 않았다.

단순히 기상을 떨치며 이들이 수놓아온 위훈창조의 나날에는 단 3일만에 지붕방수공사가 계속된 사실도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지난 7월 중순에 어느날 30층 건물의 만장우에서 진행할 방수미장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백일남, 리남준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방수미장공사를 설계의 요구대로 손색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색을 무르익히고 또 하나의 진공적인 작정을 펼친것은 그날 새벽 4시였다.

다음날부터 건물의 만장우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부대장병들이 타고난 투쟁기풍은 빨찌산식공격정신대로 되었다. 공사과제를 맡은 여러 구분대 전투원들은 교대별로 사소한 공간도 없이 연속공작드리치기를 붙이 번쩍 내게 다그쳐 2박 3일간의 긴장한 전투끝에 지붕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백두원팀에 내세워진 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걸음마다 창조적위훈을 새겨는 부대장병들은 30층살림집건물의 외부미장공사를 전부 끝내고 타일붙이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걸어온 자욱마에 새겨진 위훈의 보복은 그렇듯 크지만 이들은 조금도 황급해 놓치지 않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더욱 걸음같은 속도로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 세차게 불아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에서

《조국여, 마음껏 설 계하라!》

이것은 지난 기간 나 라의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여 최선의 말아들, 대단한 부대라는 우리 당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장병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미치는 심장의 뱀뱀이다.

우리는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세계가 비견 투쟁이야기를 보면 기적같은 고집중착고집정공정을 통하여 건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적투쟁과 전 투적기백에 넘쳐 다 휘황찬란한 미래 를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백사 들의 앞길을 가로막 을 힘은 이 세상에 없 습니다.》

불과 20일만에 배수 실개의 방으로 된 정지 큰 7층짜리 교사의 지 상방수공사 계속, 동시 에 건물내부미장 50% 를 이룩하였다.

그 후 열흘만에 건물내 외부미장공사 계속, 이것은 당이 번개처럼 불 위로 휘황하는 부대장병들의 불 굴의 정신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성과이다. 하다면 이들은 어떤 투쟁정신을 지니었기에 그렇듯

짧은 기간에 비상한 성과를 거 들수 있었는가.

지난 기간 당에서 정해진 시 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말은 공사를 완공하고 승리의 보금줄을 드러낸 부대장병들이다. 하기에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에 참가한 이들의 각 오는 날달랐다.

남창일, 김용철, 변영봉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신식적시업을 드세게 벌이는 한편 세멘트와 강재, 내수합판을 비롯한 자재들과 기공구, 건설자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승리는 벌써 전투전에 마련되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골조공사 가 개시되었다. 부대장병들의 기세는 적의 아성을 깰수버리는 방사로의 일제사격마냥 하늘 을 찌를듯이 높았다.

여기저기에 설치한 혼합기를 에서 혼합물들이 쏟아져나오 고 군인건설자들은 대형회동용 걸 세게 들어세우며 콘크리트기 구를 붙이 번쩍 내게 다그쳤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온 건설장은 분도나미만 끓어올 랐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기공 에출신동원들의 화신식경계 선들이 공사장의 분위기를 더한 중 고조시켰다.

군관 건설경쟁동무를 비롯한 군 인건설자들은 회동조립제체 간을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 이수 있는 합리적인 회동고장양 카와 원경공도리장치미장기 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 을 탐구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갔다.

돌격로의 앞장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부대군인건설자들의 불같은 심정이었다. 결과 이들은 수천㎡의 콘크리트기공과 수 만㎡의 내외부미장을 일제계획 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공공 건물건설을 맡은 단위들중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람을 떨치었다.

우리와 단란 부대정치인 군 인 김도일동무는 이렇게 말하 였다.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당의 믿음은 곧 기적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 대상뿐 아니라 부대가 맡은 미래과학자거리의 여 러 대상건설을 9월 중순까지 무 조건 끝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조선 의 실현이라는 진리를 만반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 장에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가 는 부대장병들의 투쟁이야기를 다 진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대가 추진하는 건설 대상의 그 어떤 가보아도 희 험돌격대라는 없지는 부름을 안 고 사는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 와 투쟁정신을 가슴씩차게 안아 들수 있다.

우리 당의 값높은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끝내지휘관들 과 군인건설자들은 최상의 명 명이 최상의 속도로 창조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도 다 시금 대단한 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칠 기세로 활기를 띠고있다.

리 영 민

## 비약의 불바람이다

조선인민군 김성두소속부대에서

28층살림집을 1년동안에 완성.

이것은 조선인민군 김성두소속 부대장병들이 지난 창건지리건설과정에 기록한 공적실적이다. 지금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 건설에 참가한 이들은 35층짜리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단 6개월만에 손색없이 완공할 대단한 목표를 내세우고 전격전, 립체 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법비약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리치가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비상한 공격적인 연속이다. 아름다운 살림집공조우에 이어 내부벽제미장공사를 계속한 부대장병들은 지금 규모가 큰 방사형건설도 동시에 추진 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사조건이 남달리 좋은것은 아니다. 로역과 건설기계가 부족하고 현장조건도 어렵다. 그런 속에서도 부대가 실적이 높은 단위로 자랑떨치는 면모에는 남다른 비약의 열풍을 고조시켜 많은 공사를 한의 시 기간안에 끝내려는 이들의 투철한 정신세계가 깃들여있다.

지난 7월 어느날 건물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미장공사가 한창일 때였다. 건설장에서 지휘관들의 격심없는 협의회가 열렸다. 방대한 미장공사량때문만이 아니었다. 규모가 큰 살림집 건설을 끝낸 다음에도 방사형과 지열공조장을 더 건설해야 하였던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모든 공사를 기한전에 계속하기 어렵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하기에 협의회에 참가한 지휘관들의 눈빛은 어두웠다. 합리적인 방도가 있어야 하였다.

부대책임일군이 지휘관들앞에 나섰다.

아름한 공사량에 비해볼 때 로역과 건설기계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조건이 보장되기를 믿어서 기다린다면 완공의 날이 기만큼 늦어지게 된다. 군인기질, 군인본래로 립체전의 불길을 지퍼올리자.

모든 공정을 동시에 추진해 야만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다. 이는 부대책임일군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 려주었다.

격심없이 진행한 협의회이후 대충의 심정에 불을 달아주는 화신식적시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내부미장이 한창일 때 시 공로역이 새로 편성되었다. 이 어 건물전에서는 방사형구조

골조공사가 시작된 동시에 부대적으로 방사형골조공사가 필요 한 부대책임일군이 립체적으로 벌여냈다.

백두원동무를 비롯한 군관들 모두가 두름, 세목의 일감을 맡아나섰다. 초기부사관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자동차운전자 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하루 계정의 150%에 해당하는 공사 물량을 실어날랐다. 립체전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던 그 나날에 돌격전의 앞장에서 위훈떨친 혁신자들이 어찌 이룩했을까.

구분대의 공사일정이 부대적인 건설성과로 이어진다는 자각을 가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린 신학철, 한승일동무를 비롯한 여러 구분대 정치인들과 교대없는 전투의 불길속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한창전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이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전격전, 립체전의 승결과를 담보 해나선 이들 앞에서는 방사형과 방사형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립체전의 위력은 이렇게 발휘되고있다.

본사기자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서나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 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불어차고있다. 일리따다시 새 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는 열풍적인 사회주의경쟁에 서도 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성과가 거대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된 체육성련대 지휘관들의 사업이 아주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의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체육성련대가 맡은 건설대상은 여러층으로 된 소학교건물이다. 교실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까지 갖추게 되는 형식이 독특하고 규모가 큰 건설물이다.

현대에서 이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할 때로부터 말 날 낚은 사업이 흘렀다. 그 기간 골조공사의 90%가이상이 돌파 되었다.

사실 현대적인 시공명량대 공사량만큼 따져보면 이것은 기 대하기 어려웠던 성과이다. 지난 시기 건설경험도 없고 거의 철 반로력이 너성한 사실을 눈두메 들 때 더욱 그러하다. 하여 처음 이 공사과제를 맡았을 때 체육

## 방법론있게 조직한 사회주의경쟁

체육성련대 일군들의 사업에서

성 책임일군들과 현대지휘관들의 어깨는 무거웠다. 경험이 이 다면 지난 시기 고층살림집건설 을 해본 수십명의 로력이 진부 였다. 오죽했으면 형식만을 받아 안았던 당시까지만 해도 누구나 조마삼을 감추지 못했었는가.

그러나 체육성 책임일군들과 현대지휘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이 맡겨준 건설대상을 무 조건 제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첫출발을 떼었다.

일군들이 잘한것은 사회주의 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공 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킨것이 라고 볼수 있다.

김장산, 조덕만, 안영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사초기에 사회주의경쟁을 두개 단위로 나누어 조직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사경험이 있는 성원들로 꾸려진 2개 중대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된 3개 중대를 적절히 배합하여 편성하였다.

그 후 기공준비회를 조직하 여 배 작업도구들의 용도와 리 용방법도 가르쳐주고 수시로 현장에서 용용진동동무를 비롯한 시 공일군들을 강사로 출연시켜 공 사에서 제기될수 있는 기술문제 들도 알려주게 하였다. 그 대용의 인식상태에 대한 평가항목 은 이미 정음오장에 반영되어있 었다. 오늘 비배도 있었다. 경애하는 인수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신군시대 병사가 되리라!》

부모들의 당부대로 새 이들은

들에 대하여 잘 모르면 경쟁에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되니 모든 돌격대원들의 일본래가 달라졌다. 공사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애쓰고 모를것이 있으면 스스로 일군들을 찾아가는것이 레사로운 일로 되었다. 건설현장 은 하나의 대학을 방불케 했다.

이런 날들이 흐르는 속에 돌격대원들의 기술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점차 멀거니 건설과제를 자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도 생 기게 되었다.

일군들은 이러한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더욱 방법론있게 조직하였다. 처음 두개 작업대로 나누었던 건설현장을 기초공조리 트지가 끝난 시점에서 공사초기 령명관성대로 다섯개 작업대로 나 누었다. 그 후 중대별사회주의경쟁 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되었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전투원들 의 경쟁심이 높아져 건설속도에 만 지우려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감독통제사업을 잘하여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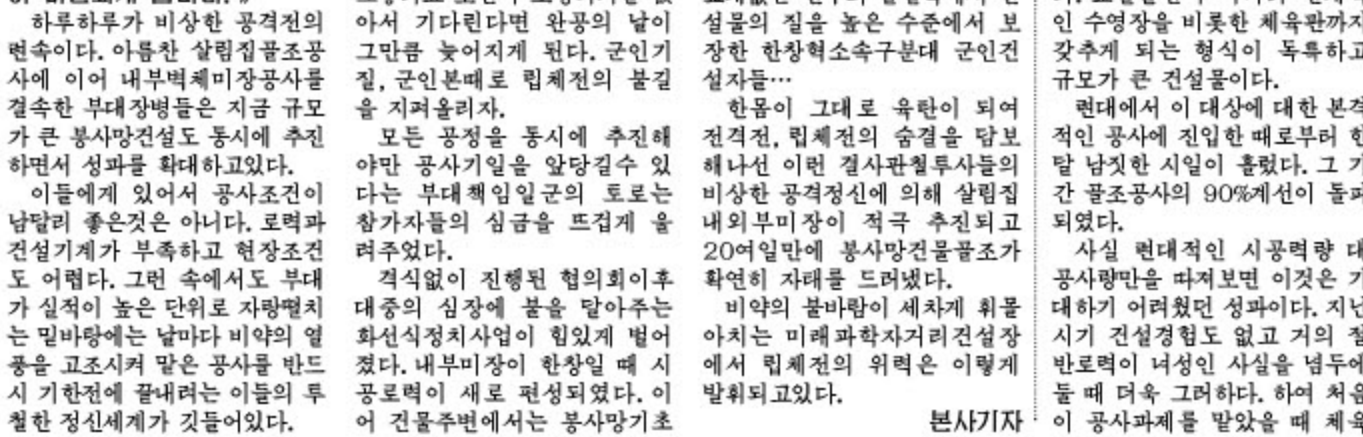
본사기자

이 과정에 모두가 진통기수준에 올라갔다. 골조가 한층한층 솟아오르는 속에 경협이 깊고 고 하던 1, 2 중대원들이 건설에서 초학도나 다음었던 3, 4, 5 중대원들에게 앞서리를 내주는 데도 있었다.

방법론있게 조직한 사회주의 경쟁이 낳은 결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혁신적인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여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면 어디서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체육성련대 지휘관들의 일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이다.

본사기자



살림집벽체라일붙이기와 미장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 -조선인민내부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살림집벽체라일붙이기와 미장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 -조선인민내부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 원 회의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9차전원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방 정모임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 하였다.

##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름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려사의 집에 깃들여 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 로씨야연방평의회대표단 귀국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해방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예브게니 부슈민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연방평의회대표단이 17일 귀국 하였다.

## 레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하산 제이투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레바논 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17일

## 외국 손님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성원들과 상봉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한 인데르스 크레스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단바르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 에스바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 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이 17일 평양에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성원들과 상봉하였다.

조선인민들과 지부성원들이 손님들과 담화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자기 조직들의 활동정형이 풍부되었고 앞으로의 반대활동은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대표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하여 축하를 하였다.

조선해방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인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미래사상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나라의 향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혁소개장과 로지명 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의 예술 소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야기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 조선과 웰남 두 나라 친선협회결성 50돐에 즈음한 전선 모임 진행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과 웰남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회결성 50돐에 즈음한 전선모임이 17일 조선웰남 친선 강상유지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부 부인 홍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친선조직들의 연방대표단, 박 비엿 홍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웰남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인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미래사상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나라의 향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혁소개장과 로지명 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의 예술 소품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이야기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 후방가속된 자강안고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후방가속된 자강안고... (Text continues in the original image)

## 파듯한 정을 안고합니다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후방가속된 자강안고... (Text continues in the original image)







